

01 교회소식

신앙의 파트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만민뉴스 창간 32주년을 맞아 아르헨티나에서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가 보내온 축하 메시지 등 교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심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 버리고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03 기획특집

주님께 드리는 고백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4월부터 진행된 ‘Thank you 만민’ 캠페인에 응모된 성도들의 은혜로운 고백.

04 간증

“뇌성마비 아들이 걷고 뛰어요!”

인도의 키타 성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은사집회에 참석하여 평생 장애로 살아야 했을 뇌성마비 아들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았다.

만민뉴스

제889호 2019년 5월 19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님을 만나 체험하는 삶의 행복을 전해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만민뉴스’ 창간 32주년 맞아



영적 깊이가 있는 생명의 말씀과 국내외 권능의 소식으로 전 세계 만민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 ‘만민뉴스’가 창간 32주년을 맞았다.

만민뉴스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다양한 주제의 기획특집,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과 국내외의 뉴스 등으로 복음 전파뿐 아니라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매체로도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김향란 집사(중국교구)는 병원 침상에 놓여 있는 만민뉴스를 읽고 은혜받아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이후 극심했던 팔 통증을 치료받고 뼈뿔어져 있던 왼손 중지가 반듯하게 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함으로써 가족 복음화가 이뤄져 남편(이명호 집사)은 술과 담배를 끊고 허리디스크까지 치료받는 등 주 안에서 축복이 넘친다.

현재 매주 또는 월간으로 발간되는 다국어 만민뉴스는 해외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들은 뒤 술과 마약을 끊고 삶이 180도로 달라졌다는 에콰도르의 조르다니스 까스뜨로 성도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스페인어판 만민뉴스를 애독하고 있다.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신종 플루를 치료받은 에스토니아 빅토르 트시가넨코 성도 역시 만민뉴스 애독자이다. 몰도바만민교회 성도들은 러시아어판 ‘만민뉴스’를 PDF 파일로 받아 프린트하여 전도지로 활용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빅토르 히메네스 성도는 만민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명확히 안 뒤, ‘십자가의 도’ CD와 함께 만민뉴스를 열심히 전하고 있다.

한편, ‘만민뉴스’는 1987년 5월 17일 창간 후, 1991년 1월 영어판 발간을 시작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은 2012년 11월부터는 인터넷 만민뉴스(www.manminnews.com)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한국어를 비롯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우르두어 등으로 발간돼 전 세계 만민에게 전해지고 있다.

Congratulations!

“성도들의 믿음 성장은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총회장 이재록 목사의 성결의 복음과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권능을 전 세계 모든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만민뉴스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르헨티나

저희 교회는 만민뉴스를 현재 A3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 사이즈로 인쇄하여 많은 성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만민뉴스를 애독하며, 이웃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로렌시오바렐라 목회자협의회와 동료 목회자들,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 <믿음의 분량> 세미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만민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만민뉴스가 나왔나요?” 하고 먼저 제게 묻습니다. 혹여 아직 나오지 못한 경우에는 지난 신문이라도 가져가곤 하지요.

목회자들은 만민뉴스에 게재되는 성결의 복음을 자신들이 설교할 때 활용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적 권세가 더욱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응답받은 분들의 간증은 성도들의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9 어버이주일 행사

지난 5월 12일, 주일 2부 대예배 후 우리 교회 본당에서 권사회연합회 주관 ‘어버이주일 행사’가 열렸다.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을 모시고 이수진 목사(교역자회 회장)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천국 소망을 더해 주었다. 이어 예능위원회 소속팀들이 찬양과 무용, 회중찬양으로 웃음과 행복을 선사했다. 매년 권사회연합회에서는 맛있는 떡과 음료를 준비해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화평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주변에 은혜를 끼치고 정화시키며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다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이삭은 오히려 양보하며 선으로 대하여 화평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화평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환을 주관하여 범사에 형통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입니다. 이 경우,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부정적인 사고의 틀 때문에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히 자책하면서 고통을 받지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는 아이는 잘못을 해도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애교를 부리면서 품에 안겨 들지요. 이처럼 진정 회개한 사람은 자책하면서 힘을 잃거나 남의 시선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된 것에 대해 연단이 오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받으면 축복이 되지요.

그러므로 아직 온전치 않아도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행함으로 계속 쌓아 나가면 자신과의 화평은 물론, 영적인 담대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1. 화평의 열매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 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당부하셨지요.

여기서 '화평'이란 내가 옳더라도 상대에게 맞출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이것도 저것도 가한 융통성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좇을 수 있고 편벽되지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지요. 또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의 단점을 보지 않음으로 누구와도 걸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오히려 원수 마귀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충성하고 좋은 결과를 냈다 해도 화평이 깨졌다면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블레셋 사람이 사는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세력이 커지자, 블레셋 백성이 시기해 여러 차례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흠으로 메워 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에게 따지거나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지요. 화평을 좇아 선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며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삭이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변론하고 싸웠다면 결국 상대와 원수를 맺고 그 지역을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정당하게 변론한다 해도 이미 악

2.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1)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의 답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하므로 담대하지요. 아직 온전치는 못하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히 진리를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이 없는 가족과 화평하기 위해 우상 앞에 절하거나 주일을 안 지키다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죄의 답을 만들어 화평을 크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자의 마음도 돌이키게 하심으로 화평을 이뤄 주십니다(잠 16:7). 혹여 내 편에서는 진리 안에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가 계속 화평을 깰 때라도 끝까지 진리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협력해 선을 이뤄 주실 수 있습니다.

2) 자신과 화평을 이뤄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성결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요동하므로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리를 택해 나갈 때 마음에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열심히 진리를 좇아 행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리 안에서 잘못 만들어진 '자기 의'와 '성격의 틀' 등으로 인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에 너무 매여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 징계가 올까 두려워 행하기

3)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무엇보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내 것, 내 입장, 내 스타일 등을 고집하는 자아가 없어야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을 이루면 남에게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을 드러내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중심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며, 편벽되어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지요. 또 한 범사에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설령 내 의견이 더 옳고 좋더라도 상대의 의견에 따라줍니다. 하지만 범죄해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에게는 때로는 사랑의 권면과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자기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틀'이란 살아오면서 성격이나 취향 등으로 자신이 옳다고 만들어 놓은 모습을 말하며, '자기 의'란 상대에게 자신의 틀에 맞는 모습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자란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장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나 믿음의 정도가 달라 각자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섬길 때야 화평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야 열납된다고 하셨습니다(마 5:23-24).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도 화평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가 악하여 화평을 깨려 해도 내 편에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결국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3.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서 깨달아야 할 점

화평을 이루려면 항상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약 3:6 ; 잠 18:21). 선한 말은 낙심한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죽어 가는 영혼을 살리는 좋은 약이 되기도 합니다(잠 16:24). 반대로 악한 말은 화평을 깨뜨리기 때문에(대하 10장) 선한 것만 보고 들으며 선한 말만 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엡 4:29).

다음으로, '내 편에서는 감정도 없고 화평한데 상대가 화평을 깬다'고 생각될 때 정말 상대의 탓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지중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녕 상대의 입장에서도 내가 화평을 좇는 사람으로 보일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화평은 마음으로 이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 혹은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화평을 깨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자신과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나도 감정을 절제해 부딪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충돌하지 않고 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4. 화평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받는 축복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은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마 5:9). 그래서 주변에도 화평을 이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해 죽으심으로 무수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요 12:24). 죽어 가던 많은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 결

과, 주님 자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말씀 하셨으니 성령의 소육을 좇아 화평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아무리 자신이 옳은 것 같아도 상대가 불편해하고 소리가 나며 부딪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함당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알아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없는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자신, 모든 사람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뵈을 수 있는 존귀한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만민! 캠페인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4월 7일부터 5월 3일까지

'Thank you 만민' 캠페인이 1, 2차에 걸쳐 진행됐다.

성도들의 은혜로운 고백 중 일부를 소개하며

우리 삶에 주인 되신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백여 집사
(32세, 2대대 17교구)

“아무 소망도 없던 제게 찾아와 주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주님을 만났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가면서 제 삶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불안감과 우울 증 때문에 자살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

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배려와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 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러면 늘 저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저의 신우신염을 치료해 주시고 다친 발목도 고쳐 주셨으며,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태어난 딸 소울이도 주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장막의 축복도 주시고, 온 가족을 늘 형통하게 지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문석준 형제
(23세, 2청년선교회)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섯 살 때 심한 폐렴을 앓았는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받았습니다. 2013년 8월, 하계수련회에서 당회장님 기도로 오던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혀 파란 하늘이 보이고, 마음 다해 찬양하시는 당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을 사랑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지요. 이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이 절절히 느껴지니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배가 즐거웠고, 언행이 진리에 따라 바뀌기 시작했지요. 만민의 양떼로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당회장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게 해 주셨기에 그 힘으로 저는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최해옥 집사
(51세, 중국1교구)

2006년 6월, 만민중앙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당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강사로 미국 뉴욕 연합대성회가 열렸는데 화면을 통해 당회장님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에 대한 말씀 또한 감동이 되었지요. 주님이 계시니 정말로 안 될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저는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모든 질병에서 놓임 받았습니다. 특히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변저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살 가망성이 1%도 없다고 했는데,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치료받았지요.

지금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생 장애로 살아야 하는 아들의 뇌성마비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키란 성도 (28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그 다음 날 저는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평소와 같이 아들을 안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직장상사인 낸시에게 의사가 말한 진단 내용을 전했지요. 그녀가 예

전에 간호사였기에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낸시는 그동안 저와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며 지속적으로 전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힌두교도였기에 강경하게 거부해 왔지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치료할 수 없음을 안 뒤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서 신앙 생활을 하니 아들의 증세가 호전되고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각종 불치, 난치병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말에 저희 부부는 마침내 델리 만민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4일, 난생 처음 교회에 가니 모든 것이 낯설고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에는 누군가가 저를 누르는 듯한 악몽을 꾸었지요. 하지만 29일(금), GCN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의 3월 은사집회에 참

석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아 간증하는 성도들을 보니 제 아들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었습니다.

담임 김상휘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섭리가 담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으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고, 섬기던 우상도 모두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 믿었고, 유튜브를 통해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정성껏 받았지요.

그러자 아이는 놀랍게도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잡고 기어오르기도 하고, 조금씩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저희 부부는 아들이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4월 은사집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일 금식을 하며 주님의 은혜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였지요.

사모함으로 준비한 은사집회 때 뇌성마비였던 아들이 걷고 뛰어

마침내 4월 26일(금), 저희는 델리만민교회에서 GCN방송을 통해 서울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에 함께하였습니다. 1부 예배 시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만 해도 저는 복부에 심한 통증이 있

었는데, 2부 은사집회 시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단에서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온몸에 뜨거운 것이 임하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평소 몸에 무엇을 올려놓은 것처럼 항상 무거웠는데, 기도받을 때 검은 남자 형상이 몸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본 뒤로 몸이 가벼워졌지요.

무엇보다 놀라운 일은 마양크가 기도 받은 뒤 갑자기 혼자 서더니 조금씩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큼성큼 걷기도 하며, 혼자 음식도 먹고, 사탕을 직접 꺼서 먹기도 했지요. 교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사탕을 주면 제대로 손으로 잡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양크는 보통 아이처럼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뛰어 놀기도 하며, 말도 잘하니 신기하기만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도 아이의 변화에 너무나 놀라워하시지요. 요즘 마양크를 보면 치료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 병원 진단서가 없으면 불치병에 걸렸던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주변에 전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 가정은 전도되었습니다.

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고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아들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제 아들 마양크는 네 살이 되어도 손으로 음식을 잡지 못해 항상 먹여줘야 했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혼자 걷지 못할 뿐 아니라 지팡이나 물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카쉬람)은 항상 아이를 업거나 안고 다녀야 했지요.

아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움직이며 뛰어놀 수 없으니 항상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것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껴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발육이 느린 것이라며 영양제를 처방해 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발육부진인 줄 알았던 아들이 뇌성마비라니!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산소 결핍으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던 것이지요. 의사는 이 지구상에 손상된 뇌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떠한 치료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아이는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 장애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 장애와 실명도 동반될 수 있다고 하였지요.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이의 앞날에 대해 듣고 나니 참담하고 막막했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4173-451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30-6 ☎055)247-8891~2, 010-4167-6580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